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민수기 1장 1-4절, 16-19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나 공장 없이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고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계산과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믿음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날마다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Clothed, Fed, and Sheltered in Christ



Passage: Numbers 1:1-4, 18-19 (ESV)

Date: October 11, 2026

Pastor: Dong Suk Chung

After leaving Egypt, the Israelites stood in the Sinai wilderness, and God told Moses to count every man 20 years or older who could go to war. The journey ahead would last 40 years. About two million people would walk through a desert where nobody grew crops or made clothes or shoes. Yet in the end, God reminded them that their clothes had not worn out and their sandals had not worn off their feet. They had not provided anything for themselves. God was with them, and He ga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For the believer, Jesus is God's answer to our needs.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our "all in all". He takes care of the three things we worry about most: clothing, food, and shelter.

The first is clothing. After Adam and Eve sinned, they felt ashamed and hid behind leaves. Nothing they made could cover their shame, so God clothed them in animal skins, a picture of Jesus, the Lamb of God. Galatians 3:27 says that all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themselves with Christ. No new outfit can quiet a guilty heart, but Christ can, and those who are clothed in Him are freed from the slavery of luxury and outward appearances.

The second is food. We eat to stay alive, but the food of this world cannot truly fill us and we are left starving for something real to sustain us. This type of physical nourishment still ends in aging, sickness, and death. Jesus said that He is the true bread, and that people live on every word God speaks. The Bible is not just a book to read. God's Word is spiritual food that nourishes us. Only when we consume the food of the Word do the assurance of salvation, eternal life, the power to overcome sin and the world, and the ability to love our enemies flow out from within us.

The third is a home. People work all their lives to provide a home where they can rest on earth, but worldly houses cannot give true rest and often

become a burden instead. Jesus said,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and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He prepared an eternal dwelling place for us in Him. The Bible says the Lord is our home. True rest is found not in material houses, but in abiding in Christ, our eternal refuge and fortress [Psalm 90:1; John 15:4]. Therefore, Jesus said to seek first God's kingdom, and everything else will be given to us.

Now we can see why God counted the people. Over 600,000 men were written down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nd tribes. Each one had to know who he belonged to and say so. Our faith starts the same way. We no longer belong to Adam. We belong to Christ, and we have moved from death to life. Paul says that if we belong to Christ, we are part of Abraham's family and will receive what God promised.

God did not want a crowd of strong-minded individuals each going their own way. In the same way, He saved us not only as individuals but to form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with Christ as its head. Just as soldiers die to their individuality and ego and learn to obey commands through difficult training, believers must lay down their own pride and stubbornness and be broken down in order to become united. Our "old self" has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the Spirit teaches us to live as one body, one church, with Christ as its head. Being born again is a wonderful gift. We are saved so that we can join together, learn from each other, and teach each other with humble hearts.

The wilderness teaches that God supplies everything for those who belong to Him, and the cross proves it. Everyone around us is still sewing fig leaves, working for bread that does not satisfy, and building houses that cannot give rest. We have been given what they are searching for. So, let go of the old thinking that worries about food, clothes, or a place to rest. When we first seek Jesus Christ, the Creator God will supply every single thing we need in our lives. Through true repentance, surrendering our own thoughts and egos and turning toward the direction of the Word, we live each day in victory through the Holy Spirit.

삼나소식

나 성 교 회



삼 성 교 회

10월 25일 2026년

NASUNGCHURCH.ORG

130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민수기 1장 1-4절, 16-19절

날짜: 10월 11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민수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삶의 과정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군대로 편성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친히 광야 한가운데 '회막(성막·증거막)'을 세우고 백성들과 거처를 함께하셨습니다. 가난한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나 공장 없이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계산이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을 통한 믿음의 세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200만 명의 생존 역사를 이성으로 수용하지 못해 전체주의 통치 체제인 공산주의를 고안해 냈으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말씀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닌 '먹는 양식'이자 삶의 실제입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나의 실제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막 안 법궤는 조각목(인성)에 순금(신성)을 입힌 것으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거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 성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

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이 안에서 살아 움직여 불신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만유'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육적 고민인 '의식주(의복, 양식, 거처)'의 문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해결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자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근본적인 죄인인 내 존재를 회개하지 않고는 이 수치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어린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 주셨고, 오늘날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에 참된 평안을 주는 옷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이 옷을 입은 자는 세상의 사치와 겉치레라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세상의 양식은 먹을수록 육체를 가꾸는 것 같지만 결국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 끼 밥은 혈기와 염려, 유혹에 빠지는 에너지가 될 뿐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돼지 쪼임열매로 배를 채우려던 탕자처럼 세상 양식에 주린 자들에게, 참된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 영생, 세상과 죄를 이길 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서 안식할 집을 마련하려 평생을 수고하지만, 세상의 집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애물단지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시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 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의 머리 가 되셨습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주님 이 성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에게는 화 가 미치지 못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이 그를 안아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שראל 백성이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보를 명확히 밝혔듯, 성도는 "나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의 확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שראל의 20세 이상 남성 60만 명이 한 군대로 편성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개인 한 사람의 신령함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한 군대)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 군인이 자아를 죽이고 명령에 복종하듯, 성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가루처럼 부서져 서로에게 배우며 연합해야 합니다.

눈앞의 빵과 육신의 요구에 매여 염려하는 옛 생각을 버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생각과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해당 설교는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 여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 예정인 11월 정기행정위원회는 한 주 연기합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학교에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학교 교사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실 분은 방명석 집사님이나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한 훈련을 받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자아가 죽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10/11 정동석 목사님 주일설교 중 발췌·정리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org>

information@nasungchurch.org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최귀순 전도사**
(81세)

뇌경색과 경미한 뇌출혈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에 편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남희 목사**
(80세)

맹장염 시술을 받았습니다. 염증 부위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박순옥 집사**
(한나선교회)

척추에 실금이 가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병길 형제**
(제2남선교회)

낙상으로 무릎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정현 형제**
(제1남선교회)

간암 진단으로 면역치료를 준비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영숙 자매**
(제1여선교회)

담낭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상문 집사**
(모세선교회)

파킨슨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